

하루를 시작하며



좌 정 목
시인·문학평론가

제주의 겨울은 서울보다 더 시리다. 싸늘한 냉기가 입춘에 이르렀는데도 급게 물러날 것 같지가 않다. 하지만 봄의 이름(立春)은 하늘의 약속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람은 밤낮으로, 바다와 한라산으로 삼투되는 것처럼 흐르고 있어도 가끔 한낮의 햇살은 맑고 곱게 제주 섬 위로 포근하게 내려준다. 문명이나 문화나 또는 과학기술의 혁명이란 말을 들으며 살지만,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제주의 곳곳에서 자연에 기댄 봄의 음이 돌아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싶다.

입춘(立春), 그 아름다움과 함께

며칠 전 후배와의 만남에서 요즘 너무도 가까이 다가와 버린 ‘AI (Artificial Intelligence)’에 대해 귀가 따갑게 그 혁명적 효용성을 들어야만 했다. 이미 실생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있으면서도 그토록 호들갑을 떨 일인가 애써 무시하려는데 후배는 더 바짝 다가와서 세상 모든 것을 알려준다면 지금은 예술적 표현까지도 넘나들고 있다고 내게 꼭 집어서 일러주기까지 했다. 주식이며 코인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제미나이’나 ‘챗지피티’를 통해 ‘불-뽕’ 투자를 하면 대박이지 않겠느냐 말하고 헤어졌다. 엔트로피의 개념으로 설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만 지구 환경도 변한다. 그러니까 지구도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고 있다는 말이다.

여러 가지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 대기 온도 상승이며 수온 변화 등은 전 지구 환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물론 자연과 생태의 파괴며 오염 문제도 있지만, 우선 대기 온도와 수온의 변화가 부정적이라면 과학기술, 지금 혁명이라고 하는 AI가 그 실제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것을 알려준다고 했으므로 이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은 거의 모든 곳에서 이 AI와 연결돼 가고 있다. AI의 혁명 시대라고 할 만하다. 그러면서 우리의 감각, 또는 조감각은 퇴화의 과정으로 진행될지도 모른다. 심지어 주체 인식의 기관들을 운용하는 방법과 능력까지도 부지불식간에 파괴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이 감각 기관을 상실하고 단지 살아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이것은 변

화를 체감할 수 있는 원초적인 기관이다. 봄이 때에 이르렀다는 오늘, 우리는 축복으로 가지고 태어난 기관들을 늘 버리며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만 하지 않을까. 오늘 입춘 한파로 우리는 겨울을 끌고 다니는 것처럼 느낀다고 해도, 때를 감각과 초감각으로 더듬어내는 헤아릴 수도 없는 고운 생명들은 가만히 삶을 드러낸다. 우리보다 더 명료하게 기지개를 켜 때를 알고 있다. 동백이 눈을 이고 피는 이유가 따로 있지 않고 유채꽃이 벌써 피었느냐고 호들갑을 떨지 않아도 된다. 제주 안의 생명들은 단 한 번도 때를 놓치거나 건너뛰지 않는다. 입춘 맞아라 했던가. 때문에, 현관에 ‘입춘대길(立春大吉)’이니 ‘건양다경(建陽多慶)’이란 파위의 부적으로 감각을 잃지 말자. 오늘은 생명들이 재잘거리는 소리에 귀 기울여 보자.

사설

법 준수해야 할 공공기관이 되레 위법행위

제주 서부하수처리장이 관할하는 16개 간이중계펌프장 연관 시설들이 공유수면법을 어기고 무단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제주시는 해당 시설에 대해 원상회복명령을 내렸다. 원상회복명령 이행 주체는 서부하수처리장을 관장하고 있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다. 16개 간이중계펌프장은 애초 공유수면 2500여㎡에 설치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실측 결과 실제 설치 면적은 이보다 2배 이상 넓은 6200여㎡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시설은 2002년도쯤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 측은 펌프장과 연결된 차집관로들이 허가 면적을 초과해 공유수면에 무단 설치된 사실을 인정했다. 문제는 서부 해안가 마을 하수처리 공정의 핵심인 중계 펌프장 시설을 철거할 경우 이

지역 하수 처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는 점이다. 본부 측도 이런 문제를 감안해 제주시에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해 달라고 신청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펌프장이 법에서 규정한 원상회복 의무 면제 대상인지 판단할 수 없어서다. 결국 전문기관에 영향 분석을 맡겨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법을 지켜야 할 공공기관이 되레 법을 위반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공공기관이 공공기관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는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다. 행정의 신뢰도에 치명적이다. 우선 법을 준수하지 않은 본부 측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준공허가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제주시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펌프장이 공공시설인 만큼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열린마당

따뜻함과 안전을 함께… 난방용품 안전 사용법



김 대 휘
제주서부소방서 안덕119센터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선 난방용품의 올바른 사용이 중요하다.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은 전기장판, 전기 온풍기, 화목보일러를 중심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 안전수칙을 당부하고자 한다. 전기장판은 보관과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관 시 이불처럼 접어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내부 열선을 끊어지게 해 화재의 원인이 되므로 반드시 둥글게 말아서 보관해야 한다. 또한 라텍스(천연고무) 소재의 침구류와 함께 사용에선 안 된

다. 라텍스는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 장판의 온도를 급격히 상승시켜 화재를 유발한다. 온풍기는 ‘주변 환경’과 ‘전력 관리’가 화재 예방의 핵심이다. 강한 복사열을 내뿜는 온풍기 가까이에 빨래를 널거나 커튼이 닿으면 순식간에 불이 붙을 수 있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가급적 벽면의 콘센트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커튼 채 자리를 비우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농촌이나 단독주택에서 많이 쓰이는 화목보일러는 ‘청소’와 ‘거리두기’가 생명이다. 불완전 연소로 연통 내부에 쌓인 타르는 1000℃ 이상으로 과열되면 불이 붙어 화재로 이어진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연통을 청소하고 재를 비워야 한다. 또한 보일러 주변 2m 이내에는 빨감이나 종이 등 가연물을 절대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고기철 위원장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국힘 도당 언론사에 문자

가축전염병 차단 안간힘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3일 언론사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 “금일 이후로 앞으로 있을 6·3 지방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에서 고기철 도당 위원장은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당부해 그 배경에 관심.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고 위원장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만큼 다음 총선을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 이에 대해 고 위원장은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를 총지휘해야 하는 도당 위원장으로서는 도지사 선거에 나오겠다고 열심히 하는 다른 후보를 위해 집중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름을 빼달라고 한 것”이라면서도 “지방선거 불출마와 연동해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다”고 첨언, 진선휘기자

○…서귀포시가 다가오는 설 명절에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이 제주를 방문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우려도 커지자 차단 방역에 안간힘. 이는 올 겨울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 ASF, 구제역 발생이 이어지고 있고, 도내 야생조류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4건 검출되며 가금농가로의 전파 위험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 시 관계자는 “연휴 기간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비상 대응체제를 유지하고, 거점소독시설 5개소와 철새도래지 통제초소 3개소를 운영한다”며 “귀성객과 관광객들은 철새도래지와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해 달라”고 강조, 문미숙기자

무역항 서귀포항 활성화 언제쯤

무역항인 서귀포항의 화물 물동량이 해마다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감굴 주산지인 서귀포시가 2020년쯤부터 감굴·채소류 등 농산물 운송도 서귀포항이 아닌 성산항을 이용하면서 말뿐인 무역항이 되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2025년 서귀포항 화물 물동량은 32만7352t이다. 제주항 물동량(2413만7192t)의 1.4% 수준이다. 서귀포항 물동량은 2017년 103만3132t에서 2019년 77만9294t, 2023년 45만7881t 등 갈수록 감소세가 뚜렷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선사들도 경영 악화로 다른 항으로 떠나고 있다. 서귀포항 활성화를 위한 물동량 확대는 수십 년 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다. 2012년 서귀포항 터미널이 완공된 후 2013~2014년에는 지역의 숙원이던 여수·녹동, 부산, 녹동 항로 여객선

취향이 추진된 적도 있지만 실제 취향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서귀포항의 물동량 감소는 육지부 출항지인 부산항과 목포·완도 등과의 물리적 운항거리가 제주항보다 길어 운항 시간과 유류비에서 불리하다는 게 주된 원인이다. 이처럼 침체된 서귀포항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는 국비 482억원을 투입하는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를 올해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다. 재정비 공사는 연안화물선 대형화 추세를 감안해 입항 가능 선박을 5000t급에서 7000t급으로 상향하고, 선박 선화장도 235m로 키워 접안 안전성도 높게 된다. 서귀포항 재정비가 당장 향만 돼 온 문제다. 2012년 서귀포항 터미널이 완공된 후 2013~2014년에는 지역의 숙원이던 여수·녹동, 부산, 녹동 항로 여객선 화 대책을 세워가야 한다.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아버지 김해김공 관식(김해 김씨 삼헌파 복도공종친회 前회장·향년 93세) 상시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 뵙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6년 2월 4일

배우자 김신형
아들 김창현 며느리 한효주
장하 광현지
딸 김수연 사위 좌대훈
선주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공고

• 피상속인 : 망 김동익(1975. 01. 17. 생)
• 최후주소 : 제주도 구산로4길 31 세송동 301호(아라일동)
상기자는 2025년 7월 19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은 2026년 1월 12일 제주지방법원 2025년 단5667호로 상속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

다 음 -
1. 신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신고처 : 제주시 구산로4길 31 세송동 301호(아라일동)
2026. 2. 4.
공고인 (상속한정승인자) 이정아
(상속포기자) 김승주, 김승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정빈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평인
2009 백도라지 평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물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모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모지전문

제주 토박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